

과학저널리즘이 없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데도 우리나라엔 진정한 의미의 과학저널리즘이 없다. 美·日의 언론사들은 50~60년대 이미 전담부서를 두고 인력을 양성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은 과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이미 설치한 전담부서마저 없애거나 다른 부서와 통합해 그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은 일반대중의 지지기반이 없는 불가능한데도 우리의 과학저널리즘이 이처럼 푸대접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과 학저널리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경제는 말할 것 없고 사회와 문화, 나아가서 정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는 지금 국가경쟁력이 곧 과학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공통같은 과학기술의 괴력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다. 자동차가 인간의 활동반경을 넓혀주고, 생활을 보다 윤택케 하는 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환경의 문제는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은 양 날을 가지고 있는 칼과 같아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집단, 국가의 의지에 따라서



李光榮
〈과학문화진흥회 부회장/과학평론가〉

플러스(正)와 마이너스(負)적인 정반대의 현상을 낳게 마련이다. 거대한 공통과도 같은 과학기술의 괴력은 커가면 커갈수록 이로 해서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사회로의 급격한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이제까지 선진과 개발도상, 후진국 등 세가지 구분으로 하던 국가수준을 가속성장국과 저속성장국으로 나누어 중진은 없어지고 선진과 후진만이 남는 양국화현상을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과학기술 패권주의가 등장해서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갈 것이며 이로 해서 세계적인 갈등이 한층 커질 것이다. 과학저널리즘은 바로 이같은 문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가운데서도 비중이 어느 분야 보다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저널리즘은 과학기술이 전문화·세분화되고 있으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영국의 과학자이며 소설가인 C. P. 스노우(Snow)경(卿)은 1959년 그의 경세적(警世的)강연 「두개 문화와 과학혁명(The Two Cultures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에서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들 사이에 커다란 대화(Communication)의 갭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대화의 갭은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이 과연 인류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과학저널리즘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18세기 산업혁명은 일반대중이 글의 문맹에서 깨어나 새로운 과학지식과 기술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급격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 빨리 진전되어 왔다. 제3의 물결로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는 일반대중이 과학문맹(Science illiteracy)으로부터 깨어난 국민과 국가가 세계를 주도해 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과학기술을

가리켜 흔히 가치중립적이라 말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야심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창출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한 절대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상당수 가장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전쟁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과학기술은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로우면서 안정되게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과학저널리즘은 이 모든 것을 포용한다. 과학저널리즘의 건전한 발전이 국가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美·日선 50년대에 전담부서 설치

우리는 오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에서 일찍이 과학저널리즘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일본의 아사히(朝日), 그리고 요미우리(讀賣) 등 우수한 언론사가 이미 50년대 과학보도를 전담할 부서를 두었다. 미국은 60년대 초 대학에 과학저널리스트 훈련과정을 두고 인재 양성에 나섰다. 과학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의 과학저널리즘은 최근 들어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의 주요 언론사가 과학전담 부서를 없애고 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과학저널리즘이 없다. 과학저널리즘이 없다고 하기보다 한심하다고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른다. 큰 언론사에는 과학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담 언론인이 있

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의 과학전담 부서와 언론인은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깊은 매너리즘의 늪 속에 빠져 있다. 언론에서 과학은 아직까지도 구색을 맞추는 부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우리 언론선 갈수록 푸대접

과학지면은 주 1~2회 정도가 고작이다. 그것도 중요한 뉴스나 광고가 치받고 들어오면 소리없이 사라지기 일쑤이다. 언론의 과학기술담당 부서의 명칭이 '과학부'와 '과학기술부'가 아닌 '생활과학부'와 '정보과학부' 또는 '문화과학부'로 이름붙여진 것도 한 예이다. 과학과 연관된 생활을 담당한다 해도 구태여 '생활'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없으려니와 '생활'에 이어 '과학'을 붙여 표기한다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과학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과학기술계를 실망시키는 것은 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자세이다. '과학언론인들이 학술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공공연한 불만이다.

과학언론인들이 과학학술활동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직무유기인 것이다. 또 각종 과학관련 학술활동 현장에서 과학언론인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니 과학기술계의 흐름을 알 리가 없고 과학보도가 원활해 질 수가 없다. 일부이긴 해도 과학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단지 타 부서로 가기 위한 절차나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론인도 있다고 한다.

또한 과학저널리즘에 몸담고 있는 언론인 가운데 과학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적다. 그러니 난해한 과학학술활동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 기사의 취사 선택을 좌우하는 데스크의 무지와 무관심 역시 과학저널리즘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과학이 무조건 재미있고 쉬워야 한다는 생각만을 강조하는 데스크의 취향에 취재의 방향이 맞춰지게 되기 때문이다. 데스크는 자신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젊은 독자들이 과학기술에 갖는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는 지금 국가 최고통치자가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21세기를 내다본 이른바 '신(新) 성장전략'이다. 그래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계는 물론 기업과 산업계에서 학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종합일간지는 물론 과학기술 전문지에도 자질을 갖춘 과학저널리스트가 태부족이다. 애써 양성된 인력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관련 주간지가 있지만 적자 속에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월간지의 경우, 2종이 있으나 이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여년간 명맥을 이어오던 월간 「학생과학」은 '95년 문을 닫았다. 과학기술 발전은 일반 대중의 지지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과학저널리즘이 이래가지고는 2000년대 선진 과학한국 건설을 뒷받침할 수 없다. 과학저널리즘의 육성이 시급하다. 57